

1 개요

칠성본풀이는 뱀신이면서 부신(富神)의 기능을 하는 칠성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칠성아기는 일곱 살에 길을 잃었다가 중의 조화로 임신하여 부모에 의하여 무쇠상자에 담겨 바다에 버려지자, 제주에 이르러 일곱 아기와 함께 뱀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사람들에게 부신으로 섬겨졌다.

2 내용

옛날 장나라 장설룡과 송나라 송설룡 부부는 부자였으나 오십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 절에 불공을 드려 딸을 얻었다. 아기씨가 일곱 살 나는 해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벼슬살이를 떠났다. 아기씨는 살창 안에 가두어 느진덕정하님에게 음식을 주며 돌보게 해두었다.

어느 날 아기씨가 어디론가 사라져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었다. 느진덕정하님이 상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알렸다. 아기씨는 집을 나서서 띠밭으로 갔다가 길을 잃고 울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지나던 중이 아기씨가 자기네 절에 불공하여 태어난 사실을 알고 오장삼에 싸서 장설룡대감댁 하마석 아래 묻어두고 집으로 들어갔다. 장설룡대감이 아기씨 간 곳을 찾아달라고 하니 하마석 아래를 파보라고 일러주었다. 아기씨를 찾아내고 보니 벌써 임신 중이었다. 장설룡대감은 양반 집에 웃음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하여 아기씨를 무쇠상자에 넣고 바다에 띄워버렸다. 상자는 물결 따라 다니다가 함덕리 바닷가에 닿았다.

그때, 일곱 잠수가 물질을 하려고 나섰다가 상자를 발견하고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었다. 송첨지영감이 낚시를 나섰다가 이를 보고 상자 속 물건은 잠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상자는 영감이 가지자고 중재를 하였다. 그리하여 상자를 여니 뱀이 들어 있었다. 영감은 낚싯대로 떠 던지고 잠수들은 비창으로 떠던졌다. 이로 인하여 영감과 잠수들은 온갖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가물개 이원신에게 점을 치니 남의 나라에서 온 신을 박대한 탓이니 곳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말대로 칠성새남곳을 하니 병이 나을 뿐 아니라 재산이 불어 부자가 되었다. 잠수와 영감이 서모오름 앞에 칠성당(七星堂)을 만들어놓고 모시니 다른 사람들도 함께 모시자고 하여 함덕마을이 부촌이 되었다.

일곱 칠성은 제주성 안으로 가기로 하였다. 사람의 눈길을 피하며 길을 가서 도성 안으로 들어가 칠성굴(七星洞)에 이르렀다. 물 길러 나선 송대장(宋大靜) 부인이 치마폭으로

맞아들여 고방으로 모시기 시작하자 누구나 알 만한 부자가 되었다.

뒤에 칠성은 제각기 흩어져 살기로 하였다. 일곱 아기는 추수할망, 이방·형방(吏房刑房), 옥(獄)지기, 과원(果園)할망, 창고(倉庫)지기, 광청할망, 부군칠성(富君七星)으로 들어섰다. 어머니는 고방의 안칠성으로 들어섰다.

3 특징

중의 조화로 임신한 아기씨가 상자에 담겨 버려지자 제주에 이르러 자식과 함께 뱀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부신으로 제향을 받았다.

이는 일반신본풀이에 속하지만 조상신본풀이와 유사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주술로 임신하고 홀로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고초를 겪다가 제향을 받는다고 한 것은 <초공본풀이>와도 유사하다.

4 핵심어

장나라, 장설룡, 송나라, 송설룡, 하마석, 함덕, 서모오름, 잠수, 송첨지, 뱀, 칠성새남, 칠성당, 제주성, 칠성골, 송대장, 추수할망, 이방, 형방, 옥지기, 과원할망, 창고지기, 광청할망, 부군칠성, 안칠성, 고방

5 원전 서지사항

칠성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